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3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63: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41장(새 20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8번(새 12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아시는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입혀주신 존귀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마당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빌립보서 2:12-16 인도자
- 찬양(Anthem)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

- 봉 헌(offering) 348장(새 213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377장(새 449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다음 주일 친교 후 믿음속회로 모입니다.
3. 클리브랜드 한인회 주소록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수량에 제한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4.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잇게 될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9:27

누가 보기에도 선하고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권리조차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이 정도는 당연히 관찮겠지!'하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권리를 사용했을 때 결과와 영향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자아(내 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빌립보서 2:12-16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사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 사도바울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니까? (12-13절) 나는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14-15절) 나의 일상 가운데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 교회 안에서 구원의 교리만큼 혼돈과 미혹이 많은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리를 통해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모든 여정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미혹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오해와 착각입니다.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오류인지는 여기에 빠진 성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구원의 과정과 완성이 한꺼번에 다 결정된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타락과 동시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는 그 뿌리를 파고들면 ‘구원’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구원만큼은 결코 잃지 않는다는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오해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저버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닌 자기 갈 길로 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의 권면은 이러한 현대 교회에 구원의 현재성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속고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항상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